

‘국립 무색’ 광주과학관 돈벌이 너무하네

곳곳 입장료에 비싼 체험료...시민들 불만 커 자체수입금 목표 맞추기 급급 공익성은 뒷전

국립광주과학관이 시민들의 호수머니를 털어 부족한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른 지역 국립과학관에 비해 부족한 정부 지원금을 자체 수입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운영비 마련에만 급급,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보한 특색 있는 과학관 운영에는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립광주과학관에 따르면 올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68억 9400만원 중 23.8%인 16억3800만원을 자체 수입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수입은 11억8900만원에 불과, 사실상 적자는 불가피한 형편이다.

과학관 자체수입 비율이 비슷한 규모의 대구과학관(19.3%)에 견줘 높은 수준인데다, 지자체 지원금(2014년 11억5800만원)도 대구(16억2300만원)에 비해 적어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게 광주과학관측 설명이다.

이 때문에 광주과학관이 상설전시관 입장료(3000원) 외에 하루 1만2000원~7만4000원짜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하면, 30만원짜리 10주 장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이같은 수익 확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광주 과학관 안팎의 분석이다.

그나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약을 했더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관람객을 뒷전으로 밀어놓는 공급자 중심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앞서, 광주과학관의 경우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전시물이 전체의 81%를 차지한다는 과학관측 설명과 달리, 상설전시관 체험 시설에 대한 부실한 관리 등으로 관람객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일부 공간은 아예 1년 넘게 운영되

돈없인 구경 힘든 광주과학관

- 상설전시관 입장 3000원
- 유료상영관 3곳 4500원
- CSI 체험료 8000원
- 공룡탐험전 입장 5000원

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체험형 과학관’을 표방하면서도 상설 전시실은 부실하게 관리하는가 하면, 공공성을 담보로 하면서도 운영비 메우는 데만 급급한 전시 프로그램을 유지해 ‘국립’ 과학관으로서의 기능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과학관 관람객 박모(45)씨는 “국립 과학관인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체험시설이 훨씬 많고 상설전시실은 고장난 채 방치하면 돈을 더 내고 체험을 하라는 것 아니냐”면서 “차라리 국립을 떼고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고 말했다.

광주과학관측은 “자체 수입 비용을 운영비로 포함시켜야 해 적자가 날 경우 내년 인건비와 전기사용료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 2013년 11월 광주시 북구 첨단지구 내 9만8248㎡ 부지에 844억원(국비 591억원, 시비 253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만7325㎡, 전시면적 7209㎡ 규모로 건립됐다. 빛과예술관, 생활과미래관, 어린이관, 기획전시실, 소리빛, 4D영상관, 전체 투영관, 빛고을탑 등 36개 주제·151개 전시품이 설치됐다. 올 관람객은 지난 10월 말 현재 28만8000명 수준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번데기 퍼포먼스’...청춘은 침낭에서라도 꿈을 꾸다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 앞에서 청년단체 ‘열정에 기름 붓기’ 회원들이 ‘꿈꾸는 번데기들의 동침-번데기 프로젝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 행사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청춘을 위해 침낭에서라도 꿈을 꾸자는 취지로 서울에서 시작됐으며 오는 29일부터는 대구, 부산 등을 순회하며 운영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

전처 이어 재혼한 아내까지...‘살인마 할아버지’

‘재산분할 다툼’ 진도 70대 체포 ...전처 살해 장기복역도

전처(前妻)에 이어 재혼한 아내마저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목 졸라 살해한 70대 노인의 살인행각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키 165cm·57kg도 채 안 되는 작은체격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의 황모(70)씨는 전형적인 농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살인을 서슴지 않는 흉악범이었다.

황씨는 지난 11일 밤 8시께 진도군의 신면에 사는 아내 박모(여·62)씨의 집에서 박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새벽 시신을 해남군 회원면 한 국도변에 유기했다.

황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가 아닌 아내의 차를 이용했으며 지난 13일 남원에 버린 뒤 도주했다.

황씨는 같은 날 대구 시내버스터미널 주변에 설치된 CCTV에 모습을 드러낸 뒤 종적을 감췄다. 황씨의 나이 때문에 진도 경찰 수사진은 처음엔 그가 범인일 것이라는 단정을 내리지 못한 채 단순 실종사건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황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한 순간, 입이 떡 벌어지면서 ‘오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20년 전에도 황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 살해한 죄로 장기복역한 뒤

출소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경찰은 23일 단순 실종사건에서 강력사건으로 전환, 황씨를 추적한 끝에 붙잡았다. 실종신고 된 지 12일 만이다.

황씨는 경찰에서 “이혼 앞두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놓고 말다툼을 하다가 횡간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복역 중 편팔을 통해 아내와 교제를 해온 황씨는 출소 후 아내와 결혼했으나 최근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남광주시장 무료주차권 위조 의혹

필적·직인 달라...동부경찰, 발행 과정 등 수사 착수

최근 광주 남광주시장 광장·지하주차장에서 사용됐던 무료주차권 중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위조·발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에서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무료주차권이 나돌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남광주시장주주차운영위원회(당시 남광주시장상인연합회)가 발행한 이 무료주차권은 남광주시장상인회와 남광주종합상가(해뜨는)시장상인회에서 수탁 운영 중인 광장주차장과 푸른길공원 지하주차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각 집포 주인들은 당시 연합회 측에 무료주차권 100장당 1만5000원을 내고 구입한 뒤 자신의 가게를 찾는 고객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무료주차권(당일 사용 45분)을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료주차권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은 서로 다른 직인과 필적 때문이다. 주차운영위원회는 광주J인쇄소 한 곳에 무료주차권 인쇄를 맡기는

데, 필적과 직인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주차운영위원회는 해당 무료주차권의 필적과 직인이 J인쇄소의 것이 맞느냐고 주인에게 확인한 결과, 주인이 “(우리 인쇄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J인쇄소 주인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내가) 주차운영위원회 앞에서 무료주차권 발행 발언과 관련, 확인해 줄 수 없다. 상인회 측과 의논한 뒤 답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남광주시장 상인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무료주차권 발행·발견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무료주차권 일부를 회수한 뒤 당시 남광주시장 안에서 무료주차권을 판매한 상점 3곳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한빛원전 부실공사 눈감아 준 한수원 직원

방화벽 관통부 보수관련 돌 적발 침수피해로 전원공급 차단 우려

한빛원전 내 보수공사 감독을 맡은 한수원 직원 2명이 부실공사를 눈감아 줬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이 눈감아준 공사는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을 경우 지난 8월 침수로 발전소 전원 공급이 차단됐던 고리원전처럼 사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수원 ‘내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 직원 A·B씨 등 2명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빛원전 3발전소 안전팀에서 근무할 당시, ‘한빛 5·6호기 방화벽 관통부 보수공사’를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태만히 했다는 것이다.

해당 공사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 차폐 및 홍수 방호를 위해 시공된 방화벽의 안전성을 점검한 뒤 보완·개

선하는 공사로서, 부실하게 이뤄졌을 경우 침수 피해로 전원 공급이 차단되는 등 지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감사 보고서는 지적했다. 공사는 지난 2월 26일 마무리됐다.

A씨 등은 시규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매일 전산으로 일일 공사감독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일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지의 부타를 보고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엄격한 품질 관리 탓에 직접 공사를 하도록 돼있는 공사를 해당 업체가 재 하도급한 것을 발견하고도 A씨 등은 묵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감독한 공사에 대해 지난 6월 한수원이 181개소 표본을 골라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3곳은 아예 공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공은 됐으나 시공 불량으로 파악된 지점도 11곳으로 나타나 애초 보수 공사의 목적이었던 홍수방호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형호기자 khh@

역대 인삼 도둑들의 최후...시장서 훔친 인삼 팔다 털미



○농촌 지역을 돌며 상품가치가 높은 4~6년근 인삼만 골라

서 훔쳐 판 역대 인삼 도둑 2명이 경찰에 털렸다. ○23일 담양경찰에 따르면 교도소 수감도중 알게 된 정모(51)씨 등 2명은 지난달 15일 밤 10시께 담양군 봉산면 최모(52)씨의 인삼밭에 들어가 2400만

원 상당의 인삼을 몰래 거둬가는 등 전남·북지역을 돌며 인삼밭 10여 곳에서 1억원 상당의 인삼을 훔친 혐의.

○광주의 한 시장에서 훔친 인삼을 팔던 중 경찰에 걸려든 정씨 일당은 “농촌지역 인삼밭은 주인이 밤에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인삼을 훔칠 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

/*정재근기자 jrg@kwangju.co.kr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4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융 3억5000만 가, 보 2억에 월 270만 가)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우리공인중개사 김종범

친절상담 H. 010-8589-5500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사정상급매

■ 29평 -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 수리
시 세 - 1억원 정도
매매가 - 75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주인직매 H.010-3180-8900

특수경매

- ▶ 배우면서 투자가능
- ▶ 주회 3개월 완성
- ▶ 2~3명 개인지도
- ▶ 경매사 자격증 발급
- ▶ 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오천경매
H.010-3605-5000